

이스트스프링 월지급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5년 03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특히,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과 함께 주가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astspring Investments-Asian Equity Income Fund)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2,981,084원

-모투자신탁 4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중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등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09월 01일)

- 클래스 A : 2014년 09월 01일

벤치마크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Index(USD)  
95% + Call Loan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9.3%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9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10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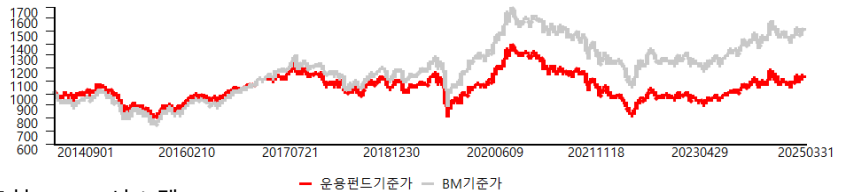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45%	4.02%	-4.15%	10.42%	13.49%	0.90%	28.46%	11.89%
클래스 A	-0.55%	3.72%	-4.72%	9.15%	10.88%	-2.57%	21.20%	-1.16%
벤치마크	-0.83%	2.57%	-4.76%	11.24%	17.47%	6.34%	51.26%	4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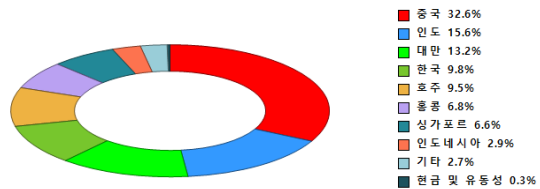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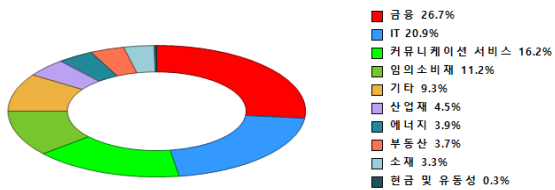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국가별 비중>



<자산배분 현황>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8.9
TENCENT HOLDINGS LTD	7.6
ALIBABA GROUP HOLDING LTD	4.0
BHP GROUP LTD	3.0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H H	3.0
NATIONAL AUSTRALIA BANK LTD	3.0
ICS INSTITUTIONAL USDTREASURY FD	2.9
RELIANCE INDUSTRIES LTD	2.7
SAMSUNG ELECTRONICS CO LTD	2.7
SK HYNIX INC	2.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175% (판매 0.7%)  
(공통사항)

운용 0.425%, 신탁 0.035%,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아시아퍼시픽 시장은 펀드의 비교지수인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quity index USD 기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대만과 호주 주식시장이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홍콩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글로벌 시장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와 1년 만기 중기 대출 설비 금리를 유지하며, 국내 수요를 증대시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도 주식시장은 금융 부문이 주도하는 랠리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과 미 연준의 금리 전망 변화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한 인구 통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가 아시아의 국내 수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규모는 향후 1~2년 동안 중국의 경제 전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시아 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펀드에서는 지리적, 산업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매니저는 개별 주식 단계에서 성장성, 유동성, 배당 성장률, 배당 지속성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시아 증시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